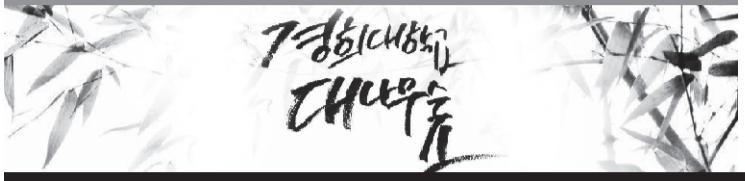


4~5》 교내SNS논란



8》 '병윤네 무인마트'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및 실적등록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6년 11월 1일(월) ~ 2016년 11월 24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실적등록 신청서,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소감문
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통이 있어야 참된 대학교육이 있다
건강한 대학자율을 요구하는 경희대학생 기자회견

장소: 경희대학교 본관 | 일시: 2016년 8월 29일 오후2시

(사진=권유진 기자)

‘대학본부의 합의없는 자율예산 축소’ 학생들 기자회견·항의농성 열어

자율없는 자율예산

권유진 기자 hahayj123@khu.ac.kr

‘자율예산’을 둘러싸고 학생과 대학본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학과 자율예산정상화특별위원회 등 ‘건강한 대학자율을 원하는 경희대학교 학생 일동’은 지난 29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건강한 대학자율을 침해하는 경희대학교 본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예산 축소, 피해는 학생 몰’

총학생회 단재민(미술학 2010) 부 학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이후 학생지원비, 실험실 습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제까지 약 79.5억 가량이 줄었다”며 “본부에서는 이미 예산을 배분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단과대 등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어찌한 집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율예산 축소의 여파로 정기 담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과 최은혜(사학 2013) 학생회장은 “학교의 예산구조개편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건 학생”이라며 “사학과 자율예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 1월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동안 본부와 소통할 수 없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와 학생의 직접적인 소통, ‘예산구조 개편에 학생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 최은혜 회장은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예산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틈에 학생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자율예산’은 자율운영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단과대학 등 각 자율운영주체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본부의 관련부서는 이를 지원한다. 각 단과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단과대학 특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시행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소통단절로 갈등 심해져’

그러나 2014년 자율운영예산 배정기준을 개정하며 자율예산을 대폭 축소시킨 대학본부에 총학생회가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자율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2009년 자율운영제가 도입된 후 학생과 자율운영 단위 혹은 본부 간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2014년에는 총학생회에서 자율운영예산위원회의 소통과 투명한 자율운영예산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부총장 행정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과 5월에도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본부와 논의를 시도했으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과정 공개 요구도

문과대학 박원규(사학 2014) 학생회장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경희대학교는 자율예산제도, 등록금 책정위원회처럼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지만, 등록금책정위원회로 참여한 학생이 예산 운영 과정에 대해 질문하면, 본부 직원이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통화결과 알려 줄 수 없다고 통보한다”며 학교의 소통불능을 꼬집었다. 또한 “우리는 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은 경희대학교가 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농성은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소통이 있어야 참된 교육도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뒤, 본관 앞에서 준비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발표된 성명서 말미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율예산 감축의 해명과 해결 ▲현재의 예산구조 개혁과 편성과정 공개 ▲소통하는 행정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논의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관계자

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에 자율예산 관련 TF팀 구성과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총학생회나 다른 단과대학의 주장처럼 소통을 무시한 적은 없다”며 “사학과의 경우에도 부총장 교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소통 무시한 적 없다”

사학과가 속해 있는 문과대 행정실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학과는 춘계답사에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 2학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예산이라도 그 비용에 맞게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은 학과의 자율”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율운영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생과 대학본부와의 소통 문제, 예산 편성 과정과 그 규모를 둘러싼 논란까지,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2013년 말, 조인원 총장은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심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밝혔었다.

과연 이번에는 학생들과 본부간의 의견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대학 자율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ewsmaker

이동진(경제학 2012)
정경대 학생회장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행정심판청구

정현진 기자 ohyunjin@khu.ac.kr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로, 재판 이전에 해당 문제가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학교 정경대 이동진(경제학 2012) 학생회장은 지난달 31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에 대해 최종처분자인 조인원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4일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12~2016 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및 산출근거’,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09~2011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및 산출근거’를 학교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학은 각 단과대학 및 자율예산단위의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총액 만을 공개했으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분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2012~2016 학년도 자율예산·산출근거’와 ‘2012~2016학년도 자율예산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 부속서류’의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해 최종처분자인 조인원 총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이미 타 대학 사례들과 대법원 사례에서도 해당 청구건이 충분히 공개할만한 정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행정심판청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구했던 자료를 받은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각 단과대학 통계나 산출공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구성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 청학정신에는 자율운영을 민주화의 꽃으로, 경희 구성원 모두가 제도와 정책의 주체로 바

였다고 전했다. 이번 세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준비한 것은 “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학교 당국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며 “어떤 것을 공개해도 되는가에 대한 학교와 본인의 판단이 달라 정보를 얻고자 행정심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2015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과대의 자율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다. “공개해서는 안될 경영상의 비밀이라면 모든 단과대학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정경대는 공식홈페이지에 ‘2012학년도 자율운영예산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올려져 있고, 문과대의 경우에도 청구했을 당시 공개 처분된 정보인데, 전체 단과대학 청구하니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미 타 대학 사례들과 대법원 사례에서도 해당 청구건이 충분히 공개할만한 정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행정심판청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구했던 자료를 받은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각 단과대학 통계나 산출공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구성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 청학정신에는 자율운영을 민주화의 꽃으로, 경희 구성원 모두가 제도와 정책의 주체로 바

로서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만큼,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야 말로 이런 취지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학원이 좀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

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포켓몬 고의 열풍과 스토리텔링

민경배 (IT디자인융합학부) 교수 **7면**

